메시아신앙의 편 되기 포인트

(마15:21-28)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메시아 신앙의 편 되기 포인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메시아 신앙의 편 되기 포인트'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예수님 편이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마는 예수님의 편이 될 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예수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도바울의 말대로 예수님과는 원수의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편 되기가 메시아신앙인데,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경제신문에 실린 칼럼에 짧은 대화의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칼럼을 쓰신 기자분이 이 대화의 출처를 밝혔는데, 요즘 방영되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세종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룬 조선의 제 2인자 자리에 있었던 황희 정승과 세종대왕과의 대화를 인용했어요.
앞 뒤 다 자르고,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전하의 일을 신하에게 전하지도 않고, 신하의 일을 전하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황희 정승이 말하자, 세종대왕이 '그래서 그대가 그리 오래 영의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신하의 일을 왕에게 고하지도 않고 왕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신하에게 고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영의정이 신하의 편에도 서지 않고 왕의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을 쓴 기자는 FTA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최루가스가 터지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투표로 통과되었던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 정치판도에 여전히 고질적인 편 가르기를 비판한 것입니다.

맞아요, 편 가르기가 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 취약성 때문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유럽전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가 제청을 했어요, 편을 가르자고.
17개의 나라가 뭉쳐 있어서는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트리플 A등급을 신용등급으로 받고 있는 6개 나라가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따로 뭉치자!
그래야 산다.
편 가르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신앙도 편 가르기예요.
사색당파가 편 가르기로 조선을 말아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호남과 영남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강남과 강북의 편 가르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 가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를 망쳐먹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신앙은 메시아 편이 되는 겁니다, 편 가르기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메시아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편 가르기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방의 지역으로 빠져나가십니다.
완전한 이방지역으로 빠져나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마태가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 마가복음에 보면 그 지역의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래요 -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방지역의 여자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었던 가나안 7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대대로 원수로 지냈던 지역의 후손인 여자가 이상하고 기이하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부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노예들이 왕을 향해서도 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상전을 향해서도 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키는 것은 이방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역사와 가르침들이 수리아 지방까지 소문이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지역까지 퍼진 건 사실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의 자손과 결합시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칭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심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지역에서 나타난 이 가나안,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여인으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똑같은 칭호를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예수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편이 된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 편이 된 것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메시아신앙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 주시려는 의도를 담고 이 사건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방지역에 사는 이방여인이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마태가 집어넣게 된 것은 거짓말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자료가 있는데 마가는 단순화시켜 버린 것이고, 마태는 마가가 단순화 시켰던 부분을 소상하게 본래의 기록대로 다 살렸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확신하는 바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처음으로 나올 때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적합한 첫 번째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딸이 귀신들렸다는 말을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딸이 귀신들려서 딸이 귀신에 끌려가면서 물에 빠지고 온갖 미친 짓을 다 하고 자해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까지 병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 백부장의 하인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 자기의 병이 아니라 딴 사람의 병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얘기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려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과 동일시한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시했고 그 딸에 대한 모성애가 너무도 커서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개라고 하시고 하는 모든 경멸을 이겨내는 승리의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모성애입니까?
만약에 사업이 흉악히 귀신들렸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나왔을 때 어떤 경멸이라도 초극해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아내서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 사업사랑,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왜 이런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정확하게도 표현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할 때의 '나'는 누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주' 되고 '다윗의 자손' 되신 메시아로서의 당신에게 나갈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서도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메시아신앙은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아들 편이고 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앞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딸과 동일시되고 있는 마음, 딸에 묶여있는 마음, 딸에 묶여서 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딸이 귀신에 끌려가면 나도 끌려

가고, 귀신에 들려 온갖 불행한 행동과 상태에 빠져있는 딸에게 마음이 질질 끌려가던 상태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제부터 상황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딸과 동일시되고 딸 편이었고 딸과 묶여 있던 이 마음이 이제는 그 딸과 불화하고, 딸을 떠나서 예수님과 묶여야 되고,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도 뜻하는 예수님 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딸에게 묶여서 딸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나를 끊어주셔서 예수님과 묶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이방지역의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들렸나이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소름이 쫙 끼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심 어마어마한 충격에 사로잡히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딸이 귀신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나오는가, 이 여인이?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당신 자신이 메시아로써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올바른 태도요, 반응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사업이 되게 안돼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이 새까맣게 죽고, 간에 고장이 날 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업에 매여서 사업에 마음이 묶여서 사업이 시궁창에 들어가니까 나까지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편이 되지 말고 주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시궁창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는 한 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안 되면 주님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묶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업에 묶여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세요!'
이게 바로 메시아신앙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사업을 갖고 나와서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되는 내 자식의 공부를 마음에

걱정으로 끌어안고 나와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지혜를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사업에 묶여있고 자식에 묶여있고 심지어는 내 몸에 묶여있는 마음까지라도 '풀어주세요', 그래서 앞에 한 얘기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아래쪽에 있는 육체에 매이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오물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이다, 분수가 되었다.
그래서 딸에 묶여있는 이 마음이 딸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메시아신앙인데 이방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로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때 여인이 한 말이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빵부스러기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결을 그렇게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같이 해서라도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개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경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멸이 아니라 그 경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것은 심판과 저주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개라는 칭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지역 사람들을 개라고 부를 때는 '너희는 저주가 합당한 자요, 심판이 합당한 자요, 망하는 것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개를 이 여인이 수용해버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저주가 합당하고 심판이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심판이 합당한 나에게도 빵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헬라어 원본을 보면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주와 심판이 합당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예수님 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마지막 과제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저주와 심판의 자리예요, 저주와 심판의 자리.

그러므로 예수님과 한 편이 되는 포인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한 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라도 나 자신이 저주와 심판에 합당한 자라는 인정이 없으면, 나 자신이 그 당시 유대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 부르던 개라는 칭호가 합당한 개라는 사실을 인정함이 없으면,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될 수 없고, 연합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 네가 저주와 심판이 합당하다는 뜻의 개라는 칭호를 네 스스로 끌어들이면서 나에게 나오느냐?'
이게 바로 메시아와 한 편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당신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귀신들린 상태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제자들의 상태와 이 여인의 상태를 동시에 내심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예상대로 제자들이 먼저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 저 여인을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같잖습니다, 왜 같잖아요?
‘아니, 심판과 저주가 합당한 주제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제까짓 게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전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왜 두로와 시돈, 이방지역에 스스로 걸어오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도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그대로 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개임을 자처합니다, 저주와 심판 받아 마땅한 개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신앙인데,
제자들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편이고 이 여자도 예수님 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편이 되려는 포인트는 저주와 심판과는 거리가 먼 영광과 권세의 자리로 올라갈 예수님의 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광과 권세의 자리의 예수님과 한 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볼 때, 저주와 심판에 합당한 개가 어떻게 우리의 영광의 주님, 권세의 주님을 쫓아올 수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사실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앞의 14장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 빠질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셨던 것과 반대로, 이 여인에게 ‘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이 되는 게 메시아신앙입니다.
자녀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이 묶였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이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문제, 건강문제, 모든 이 세상에서 마음을 묶고 있는 문제와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는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메시아신앙은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업에 매여 있는 나를 해방시켜서 예수님께 매인 바 되게 해주세요!'

자, 이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때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한 편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삶으로 또한 들어오시면서 만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과 묶여있었던 딸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십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대면하는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묶여있는 마음이 예수님과 사업 사이에서 '사업 때문에 묶여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이 사업에서 마음이 풀려나와 예수님께 묶인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업 잘해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저주와 심판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 편이 될 때에 사업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 문제가 그것에 묶여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문제로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임할 때 사업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내 몸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갈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이제 주님을 향해 나올 때의 고백은 내가 문제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되는 쪽으로, 그래서 문제에 묶여있었듯이 예수님께 묶여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묶임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바로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 내가 개라는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놓아버린 문제들은 예수님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편 되기의 포인트를 정확히 십자가에서 찾아낼 수 있어서 ‘내가 바로 개다’
내 상황이 개판이면, 경제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개판이면, ‘그래, 나한테는 이게 합당하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개이기를 자처한 이 이방여인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내고 귀신들린 딸이 예수님의 문제로 드려진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올바른 포인트를 찾아 메시아 편 되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